

# 영화

한국불교  
불교영화 70년

## 전성기 지나 황혼기... 새 동력 필요

### 1945~2015년 한국 불교영화 현황

제작년도	감독	제목	원작자	수상 내역
1949	윤용규	마음의 고향	함세덕	1회 서울신문회상
1952	윤봉춘	성불사		국방우수영화상
1955	신상옥	꿈	이광수	베니스영화제 출품
1957	신상옥	무영탑	한진건	
1958	양주남	종가	강노향	베를린영화제 출품
1961	홍성호	에밀레종		
1962	장일호	원효대사	이광수	
1962	이용민	지옥문		
1962	김승욱	이차돈	이광수	
1963	안현철	사명당	박종관	
1964	장일호	석가모니		
1965	홍성기	대석굴암		
1967	신상옥	꿈	이광수	
1967	신상옥	다정불심	박종화	6회 대중상 미술상
1968	권영순	에밀레종		
1970	김화량	성불사의 밤		
1970	김수용	무영탑	이광수	
1972	전조영	사산대사		
1972	권영순	대지옥		
1973	최하원	다정다한		2회 테헤란영화제 출품, 12회 대중상 남우주연상(남궁원)
1974	김기영	피계		3회 테헤란영화제 출품
1978	최인현	관세음보살		24회 아시아영화제 음악상
1978	장일호	호국 팔만대장경		17회 대중상 편집상
1978	이혁수	달마신공		
1979	이영우	사문의 승객		
1981	임권택	만다라	김성동	제20회 대중상 영화제, 제18회 백상예술대상, 제2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1983	박철수	땀장이 아내	정다운	
1983	남기남	소림대사		
1986	김수용	중광의 히트소리	고창욱	제7회 영평상 각본상, 제31회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출품
1989	임권택	아제 아제 바리아제	한승원	제27회 대중상 영화제 최우수작품상, 여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심사위원 특별상/제16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최우수 여우, 성조지 동메달, 성조지 금메달/ 제25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신인연기상/ 제10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여자연기상, 음악상, 녹음상, 신인연기상
1989	배용근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제42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 최우수작품상/ 제10회 영평상 심사위원특별상
1990	배철호	꿈	이광수	
1990	박철수	오세암	정재봉	
1991	정지영	산신이 부처진 이름이여		제12회 청룡영화상 남자신인상, 여자신인상
1993	장선우	화엄경	고은	제32회 대중상 감독상, 심사위원 특별상, 각색상, 음악상/ 제14회 영평상 최우수감독상, 촬영상/ 제4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알프레드 바우어상/ 제30회 한국 백상예술대상 기술상
1996	이일목	카루나		
1996	양윤호	우리	박상룡	제17회 청룡영화상 신인남우상
1996	강재규	은행나무 침대		
2001	김대승	번지 점프를 하다		
2001	김성수	무사		제22회 청룡영화상 남우조연상, 촬영상
2001	박철관	달마야 놀자		
2002	주경중	동승	함세덕	
2003	김기덕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제41회 대중상 영화제 최우수작품상/ 제24회 청룡영화상 작품상, 기술상
2004	육성호	달마야 서울가자		
2010	윤용진	할		
2011	임상진	법정 스님의 의자		
2013	이창재	길 위에서		



(위 현행은 신광철 '한국 불교영화의 회고와 전망',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참조)

영화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대중매체다. 19세기에 처음 발명된 영화는 무성영화를 거쳐 장편 방식이 도입되고 현대에는 가장 많은 자본이 투여되는 일종의 거대 사업이 됐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스크린 등을 통해 영화를 보고 있다.

한국영화사에 있어서도 종교영화인 불교영화는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만다라》, 《아제아제바리아제》, 《화엄경》, 《우리》 등 흥행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작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다.

#### 한국영화의 시작 불교영화의 태동

한국 불교영화는 현재 약 48편 정도가 제작·상영됐다. 이는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와 신광철 한신대 종교문화학과 교수의 '한국 불교영화의 회고와 전망' 논문에 기초한 것으로 종교 계열 영화 중 가장 많은 편수를 보이고 있다.

한국 불교영화의 태동은 한국영화 역사와 함께 한다. 해방 직후와 1950년대는 영화의 소재로 쓰일 콘텐츠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대부분 불교 설화와 문학에 기초를 둔 영화들이 많이 제작됐기 때문이다.

현재 영화계에서는 최초의 불교영화로 윤용규 감독의 1949년 작품 《마음의 고향》을 꼽고 있다. 함세덕의 희곡 《동승》을 영화화한 《마음의 고향》은 모성에 목마른 동자승과 주지 스님의 이야기가 사할 배경으로 서정적으로 묘사돼 지금도 수작으로 손꼽힌다.

1952년에는 윤봉춘 감독의 《성불사》가 제작됐다. 《성불사》는 계몽 영화로 제작돼 당시 국방부 우수영화상을 수상했다.

초기 한국영화를 이끌었던 신상옥 감독은 1950년대 《꿈(1955)》과 《무영탑(1957)》을 내놓는다. 두 작품은 이광수와 한진건의 소설을 영화화한 것으로 《꿈》은 베니스 영화제에 출품되기도 했다.

#### 한국 불교영화 양적 발전 이무다

1960~70년대 사회가 성장하면서 영화산업도 점차 확대됐다. 한국 불교영화도 마찬가지로 편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호국불교의 개념을 가진 영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이때다.

호국불교 영화들은 대부분 불심으로 왜적과 싸워 이기는 내용들이었다. 1962년에는 장일호 감독이 《원효대사》를, 1963년에는 안현철 감독이 《사명당》을 발표했다. 석굴암 완성 과정과 석불의 빛이 왜적을 쫓아냈다는 내용의 흥성기 감독의 《대석굴암(1965)》과 전기 영화인 김승욱 감독의 《이차돈(1962)》도 넓은 의미에서 호국불교 영화로 평가된다.

1970년대에 들어서도 호국불교 영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장일호 감독은 《호국 팔만대장경(1978)》을, 전조명 감독이 《사산대사(1972)》를 제작했다.

이밖에도 효(孝) 사상을 바탕으로 한 《에밀레종》이 1961, 1967년 두 번에 걸쳐 홍성기 감독과 권영순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용민 감독의 《지옥문(1962)》도 효 사상과 불교 설화가 접목된 작품이다.

1960년대 주목해야 할 작품은 신상옥 감독의 《꿈(1967)》과 《다정불심(1967)》, 장일호 감독의 《석가모니(1964)》이다.

1960년대 당시 감독들이 충효사상과 불교의 결합에 몰두한 데 반해 신상옥 감독은 비종교는 작가들의 문학 작품

들을 영화화했다. 물론 소재주의 취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적도 있지만 이데올로기에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 불교 문예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은 인정할 부분이다.

특히 《꿈》은 신상옥 감독에 의해 두 번 제작됐던 것과 더불어 배창호 감독에 의해 1990년 다시 제작됐다. 《꿈》은 《삼국유사》의 설화, 이광수의 소설, 영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동승' 과 함께 한국 불교영화의 소재적 장치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영화화해 개봉에 성공한 작품은 《석가모니(1964)》가 유일무이하다. 이후에도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 영화화가 추진되기는 했으나 이뤄지지는 못했다. 영화 《석가모니》는 매우 한국적인 작품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구도 과정을 그리면서 그 안에는 유교적 가족애가 끈끈하게 묻어 나오기 때문이다.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 과 '성공을 기원하는 아내' 는 다분히 한국적인 정서를 보여준다.

#### 한국 불교영화의 완성을 보여주다

1980년대는 불교영화의 '르네상스' 가 도래했다. 불교 영화를 통해 임권택 감독이라는 거장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 1949년 윤용규의 《마음의 고향》이 최초 韓불교영화... 동자승 소재로

#### 1950~70년대 불교영화 양적 성장 부처님 일대기 영화로 제작되기도

#### 80년대 구도소설 인기끌며 영화화 불교 영화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 상업 영화 유행... '조폭코드' 와 결합 2010년 이후 다류 장르서 선전 중

며, 예술성과 흥행성을 모두 담보한 영화 작품이 제작되기도 했다. 이는 문학에서 구도소설이 인기를 끌며 영화로 확장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1981)》와 《아제아제바리아제(1989)》, 배용근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1989)》, 김양택 감독의 《우담바라(1989)》이다.

《만다라》는 김성동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임권택 감독의 본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희복 진주교대 교수는 《영화 속 열린 세상》이라는 책을 통해 "10.27법난 이후 황폐해진 한국불교의 만성적인 무력감으로부터 하나의 위안과 각성을 암시해준 작품"이라며 "승속 갈등 가운데 진정한 인간의 의미를 묻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제아제바리아제》는 한승원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순례(강수연 분)라는 속된한 비구니를 통해 불교의 사회적 실천 기능을 살피고 있는 수작으로 임권택은 불교영화 감독으로 면목을 확고히 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은 당시 한국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작품세계를 보여준 작품으로 불교영화 70년사 안에서 손에 꼽을 수 있는 수작 중에 수작이다. 실제 이 작품은 제42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최우수 작품상과 제10회 영평상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불교영화는 점차 축소되지만, 문학 작품을 기반으로 한 예술 영화들의 명맥은 이어갔다. 또한 불교를 소재로 삼고 있지 않더라도 불교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한 '불교적' 혹은 '불교적으로 해석 가능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이 시기이다.

이 시기 불교영화 중 주목할 만한 작품은 정지영 감독의 《산신이 부처진 이름이여(1991)》, 장선우 감독의 《화엄경(1993)》, 양윤호 감독의 《우리(1996)》 등이다.

《산신이 부처진 이름이여》는 비구승 심해와 비구니 묘연의 인간적 변민을 심도 있게 다룬 불교 영화이지만 금지된 사랑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아쉬운 부분이 많은 작품이기도 하다.

《화엄경》은 고은 시인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장선우 감독이 영화적 문법으로 새롭게 재해석해 호평을 받았으며,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알프레드 바우어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우리》는 박상룡의 소설 《죽음의 한 연구》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송희복 교수는 "작가주의적인 착안을 통해 한국영화의 한 전형을 창조하려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불교 영화"라고 평가했다.

#### 상업 영화 유행, 불교영화 황혼기

2000년대 불교영화는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이는 상업 영화로 완전히 영화업계가 자리를 잡았고, 불교는 더 이상 매력적인 소재가 아니게 됐다는 반증이다. 그런 와중에도 몇몇 작품은 흥행에 성공했다.

2001년 김성수 감독의 《무사》는 지산 스님(이두일 분)의 삶과 의지를 통해 고려사의 흥망성쇠를 같이 한 불교 역사의 단편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 개봉한 《달마야 놀자》는 불교와 상업영화의 성공적으로 만난 작품이다. 당시 유행했던 '조폭 코미디' 장르가 만나 '불법(不法)을 불법(佛法)으로 교화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흥행에도 성공해 서울 관객 125만, 전국 377만 관객 동원으로 2001년도 한국영화 흥행 순위 5위를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속편인 《달마야 서울가자》가 제작되기도 했다.

2000년대에는 별다른 불교영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2010년대에 이르러 종교 분야 다류멘터리가 유행하면서 독립·다류 영화 부문에서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

2010년 개봉한 윤용진 감독의 《할》은 보육원에서 형제 같이 자라나 서로 다른 종교 성직자의 길을 가게 된 두 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법정 스님 입적 후 발표된 《법정 스님의 의자(2011, 임상구 감독)》는 어린 시절부터 입적에 이르기까지 스님의 모든 일생이 담긴 다큐멘터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3년에는 이창재 감독의 《길 위에서》가 개봉했다. 불교계를 중심으로 열풍이 불었던 작품으로 비구니 수행도량 '백홍암'의 비구니 스님들의 이야기를 진지한 영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성민 기자

##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충착)



은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정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충착기

신성불상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 031-533-7724, 010-5223-5174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 쑥양초 세트 · 밀납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쪽향초는 그늘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쑥양초 선물세트 6P





밀납양초 선물세트 6P



약속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잠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6개 · 가격: 30,000원  
· 크기: 높이 18cm x 지름 6cm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성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납니다.

· 구성: 6개 · 가격: 30,000원  
· 크기: 높이 18cm x 지름 6cm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상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시·공간 제약없는 신행, 新 트렌드 25년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인류가 인터넷을 대중적으로 사용하면서부터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이 같은 시대의 조류는 한국불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회현상에 불교도 동참하게 된 것이다. 기실 광복 이후 한국불교 70년사에서 IT분야의 역사는 30년이 채 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1990년대 초반 나온 PC통신은 현대인들에게는 새로운 소통의 장이었다. 이 같은 새로운 공간은 불교계 신행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이버 신행·포교'라는 트렌드가 만들어진 것이다.

## PC통신, 온라인 불교의 시작

불교계 최초 '온라인 신행단체'는 1991년 9월 데이콤 천리안의 전신인 'PC-Serv'의 불자 동호회로 시작한 '천리안 불교동호회(이하 천불동)'였다. 1992년 6월에는 '하이텔불교동호회(이하 하불동)'이 창립됐다.

천불동과 하불동은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다. 1993년 8월 25일자 <불교신문>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수계식'에 대한 기사가 있다. 1993년 8월 13일 컴퓨터불교동호회는 천리안과 하이텔을 통해 하계수련회를 참석했던 13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수계식을 진행했다. 계사는 동호회 지도법사 종수 스님(당시 경주 삼불사 주지)이 맡았다.

기사에 따르면 "컴퓨터를 통한 전자수계식은 회원들이 컴퓨터와 불교를 공통분모로 하는 불교동호회의 특색을 살리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새롭게 시도된 첨단 수계식 모습"으로 "법당의 장소를 벗어나 각자의 집에서 전화로 컴퓨터를 연결하여 증명법사와 회원이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를 이용하여 대화로 의식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수계식과 다르다"고 평가하고 있다.

PC 통신 불교동호회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곳은 천불동이다. 국내 최초 온라인 신행단체로서 10년 동안 방대한 자료가 축적됐고 2000년대 들어서면 웹사이트로의 전환이 이뤄졌다. 현재는 '인터넷 부처님오신날 천불동(www.buddhasite.net)'으로 개명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지만 활성화 되지는 않고 있다.

하불동의 경우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하불동은 '번개(인터넷을 통해 급히 약속을 잡고 만나는 일) 모임과 정기 일요법회, 산행 등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신행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인터넷이 가져온 신행의 변화

2000년대 들어 인터넷과 PC가 활발히 보급되면서 검색 엔진을 탑재한 포털사이트들이 잇달아 문을 열게 된다. 이들 포털사이트들은 '카페'라는 시스템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누리꾼끼리 모임이 있는 장을 마련했다. 불교 관련 카페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현재 이들 카페는 포털사이트 '다음'에만 1만여



김천 청암사는 2011년 9월 4일 승가대학교 울원에 승가 기본교육기관 최초로 전자수업 시스템을 도입했다.



부처님오신날 sk텔레콤과 진행한 스마트미디어 체험행사서 3D TV를 체험하는 봉사자들.

## 1990년대 PC 통신 대중·상용화 온라인 신행단체 '천불동' 등 탄생

## 2000년대 인터넷 카페가 대유행 포털 중심으로 1만여 곳 운영 중

## 스마트폰 보급되며 SNS 활성화 헤인스님 등 '국민 멘토'로 인기 매스미디어 활용한 불교운동 필요

곳이 있으며, '네이버'에는 5천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다음 카페 '나무아미타불'과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 등은 인터넷 카페 문화가 시들해진 지금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장수 인터넷 신행 동호회들이다.

사실 카페 형식의 수행, 명상관련 동호회는 현재에도 늘고 있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수행관련 사이트나 카페는 1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또한 이들 카페는 포

교, 친목단체, 사찰순례, 봉사, 찬불가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으로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인터넷 상용화는 개인 홈페이지 제작 불이 일면서 관심 있는 사부대중의 참여도 이어졌다. 성법 스님은 2001년 불교경전총론 사이트 '세존'을 오픈했지만 현재 운영난 등이 겹치면서 폐쇄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혜봉 거사의 '명상아카데미', 구선 스님의 '관수련회', 상명대 박석 교수의 '바라보기 명상' 등의 수행 사이트들도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불교계 각 종단과 유명 사찰들도 각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사중 소식들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홈페이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동영상상을 통한 법문, 교리 강좌들이 가능해졌고, 조계종 포교원은 2009년 종단 사이버불교대학을 신설하기도 했다.

## 내 손안의 PC, 세상을 바꾸다

2000년대 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며 세상은 전환점을 맞는다. 모든 사람들이 PC가 아닌 손 안의 단말기를 통해 인터넷 정보와 친구와의 소통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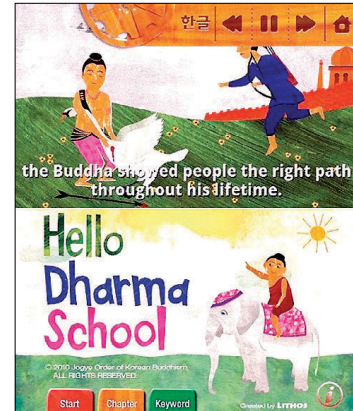
특히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는 스님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들은 함께 전국 명찰을 찾고 법회를 여는 국내 최대의 성지순례 모임으로 인터넷 카페 신행 모임의 전설 같은 곳이다.



인터넷 카페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은 특정 불교서적을 정해 매주 책읽기 모임을 갖고 회원들끼리 의견을 공유한다.



조계종 포교원이 개발한 어린이 교육 어플리케이션 '헬로달마스쿨'.

과 재가불자, 일반인의 1:1 소통이 가능해져 적지 않은 반향을 가져왔다. 특히 SNS상 스님들의 진솔한 글과 단상, 상담들은 대중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 '힐링'이라는 사회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SNS를 통한 힐링 트렌드가 유행하면서 포교의 새 지평이 열렸다. 특히 SNS를 통해 좋은 글귀를 남기고 대중과 소통했던 헤인스님은 일명 '국민 멘토'로 스타덤에 올랐다.

특히 헤인스님의 저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은 출간 7개월 만에 100만부를 돌파, 인문·교양 단행본 중 '최단기간 100만부 돌파' 기록을 세웠고 출간 3개월 만에 종합 베스트셀러(교보문고 기준) 1위에 올라 16주간 자리를 지켰다. 또한 출간 13개월만에 200만부 돌파로 비소설 단행본 중 '최단 기간 200만부 돌파' 기록을 세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5년 봄부터 서울 인사동에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라는 취지로 마음치유학교를 만들어 가족을 잃은 사람, 장애가 있는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엄마, 취업이 어려워 힘든 20·30대, 이혼의 상처를 겪었던 사람, 어깨가 무거운 40·50대 남성 가장, 유산의 아픔을 가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변화된 신행풍토를 가져왔다. 현재 적지 않은 사찰들과 불교계 단체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찰과 불교계 소식, 불교문화콘텐츠를 전하고 있다. 또한 조계종 포교원의 경우 '헬로 달마스쿨'을 비롯해 '독경 반야심경' '어린이 마음거울 108' '청소년 마음거울 108' '성불도 놀이' '음바라길' '응답하라 아바라'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IT 발달은 승가교육 현장도 변화시켰다. 조계종 교육원이 조계종 디지털 대학(www.edubuddha.net)으로 진행 중인 사이버 강좌는 스님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교육원은 2012년 승가대학 2~4학년을 대상으로 동영상 강의를 개설했다. 이 사이버강좌는 불교문화유산의 이해, 포교방법론, 불교와 사회 등 각 분야로 구성돼 학인 스님들의 반응이 그야말로 뜨거웠다.

게시판에 강좌별로 평가를 올리고 질의응답 코너를 통해 강사와 수업 중에 드는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하기도 했다. 동영상 강의자료는 다운받아 교재로 사용가능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원의 사이버 강좌의 성공은 산중에 위치한 지방승가대학의 지역적 한계를 보완했기 때문이다.

김천 청암사도 2011년 9월 4일 승가대학교 울원에 승가 기본교육기관 최초로 전자수업 시스템을 도입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 이제는 'Social'에 주목해야

빠르게 변화하는 IT 환경에 불교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박수호 덕성여대 겸임 교수는 <불교평론> 통권 제52호에 기고한 '소셜 미디어의 등장과 포교' 논문을 통해 소셜 미디어의 확장성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박 교수는 '페이스북'의 예를 들어 "효율적인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멀리 넓힐 수 있는가(관계의 범위),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소통할 수 있는가(관계의 빈도), 사람들과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될 수 있는가(관계의 강도)를 일차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질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포교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며 "무작정 부처님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교감하면서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포교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신행 생활에 대해서는 콘텐츠 개발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현재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종교 활동은 교리 학습과 공동체 활동의 비중이 높은 반면, 수행과 관련된 정보나 활동의 비중은 낮은 편"이라며 "사이버공간에서 수행과 관련된 종교활동이 교리나 공동체 부분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한 신행 공간으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행 관련 콘텐츠의 기획과 생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승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엄신주, 성철크스님 불탄법어 신년법어, 영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립니다.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JJUN Heating System Module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 쫄 ” 난방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마감재  
방열판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이점**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점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공 대상: 사찰 및 임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서울: 010-5097-8291  
부산: 010-2310-0404  
인천: 010-5759-8804  
대구: 010-9183-9729  
광명: 010-7526-3300  
안산: 010-2487-3393  
오산: 010-2043-4336

www.jjunheating.co.kr

부산: 010-3168-9250  
울산: 010-4597-5577  
전주: 010-3583-7139  
광주: 010-6294-6126  
통영: 010-3592-2447  
고성: 010-4578-0961

대구: 010-3259-3520  
울산: 010-4597-5577  
전주: 010-3583-7139  
광주: 010-6294-6126  
통영: 010-3592-2447  
고성: 010-4578-0961

제품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희화동)